

[오피니언]

월/요/광/장

장병완



10대 여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대의정치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촉발시킨 원인은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립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조직과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진, 집권 여당과의 실질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쇠고기 문제와 같은 정책 실패가 얼마든지 재발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책 형성과 소통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공직자, 나아가 대선 승리를 이끈 소위 '선거공신'들과 공직자들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대운하 문제 등이 명백 정부가 해쳐나가야 할 정책과제들을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국가의 미래에 대해 항상 걱정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다. 그들을 일방적 지시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곤란하다. '선거 공신'들과 여당에게 대화하려는 진실한 자세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모든 정책과제들을 직접 다룰 수 없고 이들을 통해 정책을 조율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이다. 이들이 적국을

정복한 점령군처럼 공직자들을 대한다는 말을 듣고 현재의 위기가 예견되었던 것이 필자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소통의 부재가 심각해진 원인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530만 표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였다는 자신감일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어떤 정책도 밀어붙이려 한다는 오만한 발상을 유발하고, 특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직자들에게 '집에 가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따르라'는 일방적 지시를 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따라서 대통령과 선거공신들은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정책공약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

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맞추어 향후 시행할 정책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공하는 정책 형성을 위한 소통을 위해 대통령과 집권 주도세력이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우선 공조적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소위 '비선 조직'이 정책결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있었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다음으

로, 의사결정 권한을 총리와 장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이 위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서 입안한 정책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결론이 바뀌게 되면 그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직적 의사소통 못지않게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요시해야 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복합적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처나 기관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면 간과되기 쉬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지도자들은 부하 직원들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중용할 때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위기관리를 돌라하기 위해 국민들과 소통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수학적 표현을 동원하더라도 진실에 기초한 마음의 소통이 없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명박 정부의 실제들이 깨우쳐 시의적절한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 미래에 대비하는 정책들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호남대 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고통분담으로 '물류대란' 해법 찾아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 물류 운송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전남지역의 경우 15일 현재 주요 물류운송 통로인 광양항과 여수산단의 화물운송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국의 물류운송도 파업이 2~3일 더 진행되면 전면 율 스톱할 상황이라고 한다. 물류가 중단되면 수출길이 막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 전반이 마비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파업이 고유가에서 비롯된 만큼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유가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화주·차주 등 당사자들이 상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추가가 지닌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비상사태인 점을 감안해 추가 지원에

응용성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대기업 등 화주는 운송료 문제는 양보해야 한다. 당장 화물차 운전자의 생계가 곤란한 만큼 일정 수준의 운송료 인상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파업의 주체인 화물연대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요구는 자제하는 것이 순리다. 경제가 망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낙후된 국내 물류체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민선적인 화물차 공급과잉, 운송 알선업체의 난립 등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화주의 탐핑 강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 2, 3의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화물시장구조 개혁과 함께 표준 요율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의 장기화는 어떤 이유에서든 안 된다. 이해 당사자들이 국가 경제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은 있을 것이다.

여야 정치력 발휘 국회 정상화 서둘러라

제 18대 국회가 개원조차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따른 여론의 악화로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파행 정국의 책임은 물론 정치권에 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치력 부재를 드러냈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실패했고 야당에 도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통합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갈거리 정치'를 선택했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등원론을 피력한 것은 다행이다. 손 대표는 "국회 등원을 무한정 늦추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의원들이 국회에 안 들어가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등원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셈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여야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제 1야당이 장기간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매달려 선 실자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민생은 심각하다. 고유가와 고통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각종 경제 지표가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만큼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 등은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할 국가적 과제다. 국회와 민생을 외면하고 대처해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심은 충분히 확인됐다. 청와대는 쇠고기 파동의 획기적 수습책과 함께 인적쇄신 등 국정쇄신을 서둘러 성난 민심을 달랠야 한다. 시간을 끌면 갈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야야 지도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충재 (Portrait of Kim Chung-jae)

최근 세계 각지에서는 국가경제성장률과 함께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중요시 여기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계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민총생산(GNP)대신 '행복'을 발전적으로 삼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해남군도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경제, 관광레저, 지역특화브랜드, 주민참여 및 보건복지 향상에 올인하고 있다. 해남군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3.9%를 초과할 만큼 빠른 속도로 초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애쓰고 있다. 올해에는 14억7천여만원으로 현산면 구산보건진료소와 송지면, 옥천면, 현산면 보건진료소 등 4개 공공보건기관 신축 예정에 있다. 농촌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반면에 건물은 협소하고 낡아 원만한 보건진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새로운 건물이 완공되면 지역

기고 조기종 (Portrait of Jo Gi-jong)

세계 어디서나 집을 지을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21세기 문명을 달리는 런던·파리·베이징·서울·도쿄·뉴욕 등에서도 반드시 들어있는 시설이 있다. 바로 문화시설이다. 인간이 인간을 최고 '영'의 경지로 끌어 올려 정신세계를 누리갈 수 있는 곳에 문화의 발전 과정이다. 문화 발전으로 가는 계획 도시는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 안된다. 배부르고 때 싸롭다 하여 잘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된 속에는 어떤 문화시설들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시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은 선사시대이나 지금이나 주거 문화로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동안 집의 역사를 계속 발전시켜왔다. 역사에서 나타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칭찬 받았던 때는 문화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다. 또 허허벌판이던 서울 강남은 예술의 전당이 들어섬으로써 국제도시가 되었

건강한 삶 누리는 '행복 해남' (Portrait of Kim Chung-jae)

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상태. 따라서 해남군의 복지정책도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복지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다. 올해에도 해남군은 비싼 의치 가격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93명에게 1억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틀니를 지원했는데, 예상 외로 큰 호응을 얻어냈다. 또 독거노인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5천700세대의 가정에서 직접 방문해 8천818명에게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활동 등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불치병으로 알려진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함으로 암 검진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일단 올 연말까지 2만1천589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사업 장비 현대화에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돼 날로 늘어나는 노인성질환의 예방과 함께 진료기능의 역할을 다하는 새로운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노력으로 해남군은 2008년 행복 도시대상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년 연속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활발한 질병 예방 활동을 통하여 3년 연속 전염병 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도 지정되는 영예도 누렸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복지정책도 지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해 해남군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원해 본다. <해남군 보건소장>

문화를 꿈꾸는 도시를 만드자 (Portrait of Jo Gi-jong)

인류는 문화를 생활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화를 융성시키고 시대를 창조하며 계속 발전시킨다.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다. 문화수도 광주, 이제부터라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으면 세계적 명품 도시로 꿈꾸어 갈 수 없다. 지난 2005년, 30년동안 묶여 있던 광주시 동구 지원동 그린벨트 29만평이 해제되었다. 광주 1번지 개발을 목적으로...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08년, 어떤 문화들이 들어있는지 그 곳의 개발에 대한 밀그림들이 나와 있어야 한다. 동구는 문화수도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중요한 곳이다. 평화와 인간의 도시가 걸맞게 문화시설이 꿈꾸어져야 한다. 무등산이 안고 있는 땅 29만평 해제

된 속에는 어떤 문화시설들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시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은 선사시대이나 지금이나 주거 문화로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동안 집의 역사를 계속 발전시켜왔다. 역사에서 나타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칭찬 받았던 때는 문화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다. 또 허허벌판이던 서울 강남은 예술의 전당이 들어섬으로써 국제도시가 되었

無等鼓

한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의 대표적 상징은 양초다. 양초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연원은 고대로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발굴때 삼국시대에 이미 초를 사용했음을 입증했다. 전기가 발명되면서 장구한 세월 인류와 함께 했던 촛불은 용도폐기됐다. 그러나 실용적 의미에서의 폐기일 뿐, 촛불이 주는 의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은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한다. 탄생과 죽음, 결혼의 자리에 촛불은 예외없이 등장한다. 종교적 의미도 크다. 가톨릭과 기독교, 로 무장한 시민들은 현장을 직접 중계하면서 기존 언론의 역할을 대신했다. 인터넷방송 '아프리카'는 하루 500만~600만명이 접속하는 대언기를 누렸다. 촛불과 참전기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수식만 촛불의 조화라는 새로운 한국식 시위문화를 연출하고 있다. /주승호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에 치어 솟진 흡순·미선양 추모 집회에 처음 도입했다. 촛불집회 현장에 촛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첨단 통신기다. 소설가 이문열씨는 촛불집회에 대해 "본질은 위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의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첨단 디지털로 무장한 군중들의 위력만은 가늠할만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한 손에 촛불을,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성능좋은 카메라폰으로 집회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 즉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캔 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불교의 중요 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촛불이다. 촛불에는 생명, 추모, 경건, 위안, 감성, 순수, 희생의 이미지가 겹친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은 비문명, 반문명적이다. 촛불시위가 처음 열린 것은 1960년대 미국의 반 베트남전 시위현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 미군 장갑차

지구온난화로 아카시아 꽃향기 사라져 (Portrait of Kim Chung-jae)

집 뒤편 야산에 적지않은 아카시아 나무가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카시아 나무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심어놓은 나무라 하여 싫어하고 배척하기도 하지만 그저 나무와 꽃으로만 보고 기후와 연관지어 몇가지 생각을 전하고 싶다.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짙은 향기로 꿀벌을 유혹해 우리에게 꿀을 제공해주는 이 아카시아 나무에서 향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전 야산의 산책로를 걸으면서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고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꽃가지를 끌어당겨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향기가 나지 않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아카시아 꽃은 라일락, 등나무꽃 등과 함께 향기에 관련한 난형난제할 만큼 그

향기가 아주 진하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독특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꽃이었다. 하지만 아카시아 나무에서 향이 나지 않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영향이라고 하니 충격적일 뿐이다. 향기가 없는 아카시아꽃, 등나무꽃, 라일락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수많은 변화와 함께 예측하지 못하는 재앙이 올 수도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문제는 어느 한 지방이나 국가만의 일은 아니다. 어릴 적 누구나 어디에서나 어른이 할 것 없이 익숙하게 부르던 노래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에서 향기가 빠진 빈껍데기 꽃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 ▲김삼욱·목포시 대변동

대학 기말고사 부정행위 만연 '부끄럽다' (Portrait of Jo Gi-jong)

골 기말고사 실시된다. 어떻게든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부정행위도 덩달아 만연해진다. 더구나 요즘처럼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대학 성적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대학생 중 부정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이 몇 %나 될까. 시험 때마다 도서관 열람실이나 강의실 곳곳에는 컵받침 사용금지 표지를 위해 개달같은 글씨로 머리를 맞대고 애쓰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요즘에는 휴대전화나 PDA까지 동원한 최첨단 수법이 더 많이 사

용된다. 그러다 보니 시험 때면 컵받침하는 학생들과 이를 막으려는 감독관들이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이는 추태를 보이기도 한다. 컵받침을 컵받침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치부하기에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 같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컵받침은 기회주의, 부정부패 사회로 가는 절경이나 다름없다. 지성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대학과 대학생들이 모양이나, 그들이 나가 일군 사회에서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건 모두 반성해 보았으면 한다. ▲우항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김삼욱·목포시 대변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details.